

건강한 공동체를 찾아서

성인경

저희 부부는 얼마 전에 참석했던 국제라브리간사회의(2014. 4.9-15, 영국라브리)에서 포르노, 술, 섹스, 도박 등 ‘각종 중독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란 주제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로 온 린다 프록터(Linda Frocter)라고 하는 50년 이상의 임상 실험 경험이 있는 상담사가 와서 말하기를, “공동체가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여러분들은 내부에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중독자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이다.”라고 해서 모두가 놀랐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깨지고, 친구가 없고, 교회도 안 가고, 사회생활도 안 하면서 생긴 문화적인 병이 바로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 등 각종 중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부쩍 “공동체를 살려야 된다.” “공동체가 대안이다.” 등 공동체(共同體, community) 부활론¹⁾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민족 공동체”, “지식 공동체”, “사이버 공동체”, “공동체 체험”, “공동체 철학”이란 말도 많이 들립니다. 이런 현상을 연구하는 정치철학을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라고 부르고, 신학에서는 “공동체 신학”, 선교학에서는 “공동체 선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체의 과거와 현실을 살펴보고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것인지 그 특징을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체(共同體) 또는 커뮤니티(community)는 같은 환경을 공유하는 사회 집단이며, 보통 같은 관심사를 가진다. 인간의 공동체에서는 믿음, 자원, 기호, 필요, 위험 등의 여러 요소들을 공유하며, 참여자의 동질성과 결속성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 서구의 공동체를 뜻하는 커뮤니티(community)는 라틴어로 같음을 뜻하는 communitas에서 왔으며, 이 말은 또한 communis, 즉 같이, 모두에게 공유되는에서 나온 뜻이다. Communis라는 말은 라틴어 접두사 con- (함께)와 munis (서로 봉사한다는 뜻과 관계 있다)의 합성어이다. 공동체는 혈연이나 지연에 기반한 전통적인 닫힌 공동체와, 공동의 관심사와 목표, 이해를 가지고 구성된 근대적 열린 공동체, 즉 사회나 결사체 등으로 나뉜다.—이는 퇴니스가 분류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를 공동체와 결사체 또는 연합체로 다르게 번역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팡의 공동체는 혈연을 넘어선 민주적 공동체로 결사체를 포괄하기도 한다.

공동체를 이루는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소속감: 학습공동체의 참여자들은 충성심을 느끼고, 그룹으로 뭉쳐서 계속 일하고 타인을 돕도록 한다.
- 2) 영향력: 참여자들은 공동체 안의 일들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
- 3) 요구충족: 학습공동체는 참여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자세한 정보를 원함으로써 특정한 필요 요구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4) 사건의 공유와 정서적 연결: 학습공동체는 감정적인 경험이 포함된 특정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공유한다. cf. Wikipedia



이 문서는 라브리공동체 웹사이트 자료실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저작권은 글쓴이에게 있으며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및 소량 배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the online library of L'Abri Fellowship Korea. All copyright belongs to the author. Printing, copying and small-scale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personal and group study.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라브리공동체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3025
☎ (+82) 033-673-0037 ✉ yangyang@labri.kr

www.labri.kr

1.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이유

(1) 개인주의(個人主義)의 부작용인 외로움 때문

개인주의는 인간 사회의 오래된 습성이기도 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1) 개인주의가 만드는 결과는 한 둘이 아니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수 백 개가 넘고, 아는 사람도 많으나 정작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외로울수록 각종 증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증독에 빠지는 순간은 혼자라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입니다.

2) 개인주의가 만드는 쓴 열매 중에 하나는 ‘공공생활(公共生活)의 악화’ 혹은 ‘공동체 의식의 쇠퇴’입니다. 2010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인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김영사)라는 책으로 유명한 하버드대학교의 샌델(Michael J. Sandel)²⁾과 같은 정치철학자는 지적하기를, “미국 사회의 지나친 개인주의는 공동체 의식의 쇠퇴를 가져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세기 초반의 미국 전원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개인주의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이나 “전원생활”로 돌아가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매우 순진한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일과 사람에 너무 지쳐 있기 때문

어느 약국이나 가장 잘 나가는 약은 ‘피로 회복제’라고 합니다. 쉬는 것이 제일 좋은 약이지만, 피곤해도 쉴 수가 없는 형편 때문에 ‘약이라도 먹고 일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는 말하기를, “현대인들이 제일 자주 하는 말은 “피곤하다,” “쉬고 싶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잘 쉬지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지치고 탈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 하는 일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직장 일이든,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하는 일이 힘들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2) 너무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연고주의’가 강한 세상에서는 출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3) 잘 쉴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프기 전에 쉬니까, 아파야 쉬니까? 아니면 아파도 안 쉬니까?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지친 사람들이 잠시라도 쉬고 싶을 때 찾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2) 샌델(Michael J. Sandel)은 1980년대부터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간의 논쟁에 불을 붙인 사람이다. 이 논쟁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근본이 되는 개인주의가 장악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상실되어가는 공동체의 가치에 관한 새로운 관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의 핵심인 개인주의를 공격 목표로 삼고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로 말미암은 공동체 가치의 파괴가 공공생활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오늘날 겪고 있는 자유민주체제의 위기-개인주의의 잠식효과-를 공동체주의의 함양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들은 공화주의 전통의 부활 혹은 20세기 초반의 전원생활의 특징 회복 등을 통해 현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테일러(Charles Taylor)는 같은 공동체주의자이면서도 샌델과는 다르게 “근대적 개인주의가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용해제라는 증거는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진 사람이다.

cf. C. Taylor, 근대의 사회적 상상, 이음, 34. <http://mybox.happycampus.com/dabblers/108725>

(3) 돈과 경제적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시달리고 있기 때문

현대 사회가 주는 각종 스트레스가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돈 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부자들도 스트레스를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는 적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도의 경쟁사회 속에서 실업자거나 스펙 관리에 지친 사람들이나 빈부 격차에 화가 난 사람들이 경제적 도피처나 이상적 모델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과 아미쉬마을(Amish Village)나 부루더호프 공동체(Bruderhof Community)의 ‘공동소유 정신’에 열광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한국의 최대 이슈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복지” “무상버스” 등 “무상 이슈”입니다. “잘 살아보자.”는 구호는 물질주의적이라 경계하자고 했으나,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이라 경계하자는 말이 들립니다. 둘 다 경제 욕구를 해결해 보자는 정책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경제 정의와 부의 분배를 다 만족 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4) 테러와 폭력 그리고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

세상은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잠시 범죄가 멈췄더니, 다시 테러와 폭력 그리고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테러와 폭력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 정치 폭력, 성폭력 등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제와 문화가 많이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온 세상이 전보다 더 불안해졌습니다. “스마트폰”과 세상의 문화 코드는 엇비슷해졌으나 정신 구조는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우면 이단도 많이 생기지만 건강한 공동체를 찾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최근에 미국 아미쉬공동체에 평생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폭력과 불안이 가중될수록 “인류 평화”와 같은 “범세계적 신념 체계나 공정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나 ‘준거틀(reference point)’을 더 찾는 발걸음도 빨라지리라 생각합니다. 마치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이 온갖 혼란을 가중시킬수록 영원불변한 절대적 진리를 찾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5) 교회가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

대단히 불편스럽지만, 기독교가 시증의 술안주가 되어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목사만 아니라 장로, 전도사, 집사, 권사까지 싸잡아서 “그 새끼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은 한국 기독교와 교회만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교회 내부적으로 공동체의 특성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가 자부하던 공동체의 실재성(reality), 철저성(radicalism), 가시성(visibility), 개혁성(reformability) 등을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되고 타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더 가까워 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교회가 타락할수록 좋은 공동체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영적 법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동체의 역사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2. 공동체에서 야기되기 쉬운 문제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상에서 살펴본 공동체의 내부적 특성은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것이므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며, 또한 내부적 특성은 공동체의 위기 요인과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내부적 특성을 강화하면 할수록 위기 요인이 증가하고, 내부적 특성을 양보하거나 약화 하면 할수록 위기 요인은 감소 혹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공동체의 주된 위기 요인들을 다섯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가 많다

공동체에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최상의 낭만과 사랑과 우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최악의 모함과 배신 그리고 시기와 증오, 헐박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으면 공동체는 천국과 같은 곳이지만,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공동체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모함과 배신 그리고 증오를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공동체는 ‘브루더호프 공동체(Bruderhof Cmty)’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루더호프의 오늘이 있기 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창립자 에버하르트 아놀드(Eberhard Arnold, 1883-1935)보다도 그의 아들 요한 하인리히 아놀드(John Heinrich Arnold, 1913-1982)³⁾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며, 교만하고, 자기 이익과 권세와 지위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공동체 삶은 투쟁의 연속이었다. 나는 여러 번 믿었던 형제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말로 표현하기 힘든 온갖 기만과 헐박을 받았다.”⁴⁾

(2) 성적 범죄와 성폭력이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에 유명한 목사님들과 그들이 이끄는 교회가 크게 물의를 빚은 것은 섹스 스캔들 때문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의 성범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났습니다. “목회자들의 방은 조용하게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사무실이나 상담실을 폐쇄된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을 경우에 성 범죄만 아니라 다른 범죄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2) 영적 지도자가 스스로 무덤을 팝니다. 사무실이나 상담실 안에 침대, 긴 소파, 샤워실, 화장실, 케이블 텔레비전 등을 두면 충동적인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도 그것을 방치했습니다.

3) 브루더호프 공동체 설립자 에버하르트 아놀드의 아들. 11세 때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소명을 발견한 후 전 생애를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다. 1938년 말씀의 종이요 목자로 추대되었고, 1962년부터 1982년 임종할 때까지 브루더호프의 장로로서 섬겼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내외적인 평안을 위하여 사람들을 깊이 돌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은 책으로는 [공동체 제자도](Discipleship, 쉐터 역간), [생각 지킴](Freedom from Sinful Thoughts, 진홍 역간), [꿈꾸는 인생](홍성사) 등이 있다.

4) 하인리히는 독일과 영국에서부터 매우 야심이 많았던 매제로부터 시기와 헐박을 받아 공동체에서 불합리하게 리더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활동 제한을 받았을 때도 꼭 참았고, 브라질에서는 그 매제로부터 결혼한 부인과 강제 별거 명령을 당했을 때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정글 속에서 혼자 먹고 살아야 할 때도 잘 참았고, 미국에서는 부인도 없이 몇 년 동안이나 낯선 곳을 다니며 홀로 모금 운동을 해야 했을 때도 잘 참았다. 그 후에 그는 브라질, 미국, 영국 브루더호프 공동체를 살려 내었다.

3) 배우자와 교회에게도 책임이 있다. 아무리 지도자가 평소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인간인지라 일탈과 충동에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 했습니다.

(3) 헌금을 부정직하게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했다

최근에 한국교회에 취약한 곳이 하나 더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교회 헌금의 불법 사용입니다. 교회 헌금을 주식에 투자한 교회, 교회 헌금을 목사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교회, 교회 헌금을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교회, 등 돈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도원이나 대안 공동체들은 풍부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가난하게 살기로 자처하거나, 공유재산제를 채택하거나, 자립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부정직한 세상 경제 구조에서 탈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브루더호프나 예수원은 생산과 모금을 병행합니다. 베다니는 자립 공동체이며 남는 수익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신학생들을 후원합니다. 라브리과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가 세운 도나부르는 영리단체도 운영하지 않고, 모금제도도 두지 않고, 자립도 포기하고 헌금에만 의지하여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4) 신학적인 입장에 차이가 크다

공동체의 핵심은 사랑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요한복음 17:8-23) 짧은 기도 속에, 왜 예수님은 “하나”라는 말을 여러 번 했을까요? 그 만큼 분열의 조짐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멀지 않아 예루살렘교회는 구제 문제로 유대파 기독교인들과 헬라파 기독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했고,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이방인들의 구원과 할례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에베소교회나 고린도교회에는 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부탁도 하나 되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에베소서 4:13-15) 그것은 모두 신학적 교리적 하나를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가 안 되면 공동체는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 1) “우리는 밥을 같이 먹었다.”
- 2) “우리는 목욕도 같이 했다.”
- 3) “우리는 같은 학교와 동네에서 자랐다.”

이상과 같은 방법은 매우 감정적이고 체험적인 방법들이기 때문에 유익도 많지만 폐해가 더 많습니다. 그 보다 더 근본적이고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리적 정신적으로 하나 되는 작업, 즉 가치관의 일치 작업입니다.

(5) 영적 위기와 탈진을 막지 못하고 있다

라브리에에는 치열하게 살다가 찾아온 영적 지도자들과 기독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보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볼까요?

1) A간사: “나는 열정적으로 캠퍼스 일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만났고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나의 실력은 바닥이 났고 영성은 탈진 상태입니다.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읽기는커녕 신간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매우 형식적이었습니다.”

2) B선교사: “인도에 온지 10여년이 지났을 때 나는 선교에 베테랑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척한 교회들도 기반이 잡히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때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내 삶의 최 우선순위였던 새벽기도 대신 운동이나 영화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3) C목사: “나는 지난 15년 동안 목회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좌절감 뿐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지도 않고 성도들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고 설교도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목회 하는 것이 겁이 납니다.”

4) D청년: “영적 거인들도 넘어지는데 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무엇인지 배우기도 전에 단기 선교나 찬양 사역이니 하면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보니, 신앙은 하나도 자라지 않았는데 교회에서는 이미 선배가 되어 있었고 동생들 앞에서는 리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가나안 성도’가 되었습니다.”

3. 역사적으로 대안을 자처한 공동체들

(1) 쿰란 공동체(Qumran Community)

요세푸스와 필로에 의하면 쿰란은 다음과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 1)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공유재산제를 실시했다.
- 2) 3년 동안 공동체 경험을 한 후에 회원이 될 수도 있고 결혼도 할 수 있었다.
- 3) 공동체 지도자는 투표로 뽑았으며 지도자에게 절대 복종해야 했다.
- 4) 어떤 종류의 맹세든 일체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동물 희생 제사를 드렸다.
- 5) 감정을 잘 절제해야 하며 평화의 도구로 남을 섬겨야 했다.
- 6) 강도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었다.
- 7) 노예는 전혀 없었으며 일이 생기면 서로 돕고 섬겼다.
- 8) 장사, 상업 행위는 허용되지 않았다.
- 9) 영혼 불멸을 믿었으며 죽은 후에도 영혼이 되 돌아온다고 믿었다.

이런 정신이 초대교회에도 일부 계승되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연회를 여는 데 쓴다든지 마시고 먹는 일에 소비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장례를 치러 주는 일에 사용하며, 부모를 잃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소년 소녀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며, 집에 갇혀 있는 노인들을 보살피고, 파산 당한 이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데 사용했다… 그것은 너무나 고상한 사랑의 행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일컬어 이렇게 말했다. ‘보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를!’”(터툴리안, 변증서, 39장)

(2) 수도원적인 공동체

수도원 공동체는 중세의 제도화되고 점차 부패되어 가는 교회를 개혁하고자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500-950년 사이에는 유럽 전체에서 퇴보하던 기독교를 보호하고 자극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도원은 경건과 성경 연구 및 대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 발전의 산실이 되었고, 지도자 육성, 자급자족의 경제 제도, 박물관 역할 등 그 업적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수도원이 529년경 누르시아의 베네딕투스가 로마 남동쪽 몬테카시노에 아폴로신전을 부수고 세운 성베네딕도수도원(St. Benedictus Abbey)⁵⁾입니다. 베네딕투스수도원의 3계율은 ‘청빈(poverty)’, ‘정결(chastity)’, ‘순종(obedience)’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수도원에 역기능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원론적인 금욕주의로 채색된 신비주의에 오염되기도 했고, 인간적 경건 훈련이 은혜의 원리를 잠식하기 시작했고, 타락한 수도사들이 정치와 결탁하기도 했습니다. 수도원 운동은 영향이 컸으나 로마 천주교의 부패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3) 경건주의 운동(Pietism)

경건주의는 1500년 역사의 천주교에 반기를 든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의 부작용으로 시작되었다.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이신칭의)고 하는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점차 공동체적 삶의 경건⁶⁾ 즉 순종, 헌신, 섬김 그리고 훈련을 소홀히 했습니다. 경건주의는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일어났습니다. 경건주의자들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경건과 참된 교회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은 스페너-프랑케-진젠도르프-모라비안-웨슬리, 아놀드 등에 이르며 약 200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건주의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강조했습니다.

1) 신구약 성경은 교회에서 읽혀지고 상세히 설명되어야 하며, 개인별로나 그룹별로 성경공부가 장려되어야 한다.

2) 각 사람들의 은사를 계발하고 평신도들 사이의 상호 책임성을 위해 루터의 만인제사장설에 대한 강조점을 재발견하고 적용해야 한다.

5) 성 베네딕토 수도원은 유럽 수도원의 전형(典型)이라 할 수 있는데, 개인주의적이고 금욕적인 동방의 수도원에 비해, 중용과 공동생활을 채택하여 539년에 수도계율(修道戒律), 즉 회칙을 초안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서유럽 수도원제도의 모범이 되었다. 6세기 말 랑고바르트족(族)에게 약탈당해 수사들은 로마로 피신했으며, 717년에 재건되었다가 884년에는 사라센의 침공으로, 1046년에는 노르만족의 침공으로 파괴된 것을 재건하여 11세기에 최성기를 이루었다. 16세기에는 수도원이 4개의 주교좌 관구와 2개의 공국, 1662개의 교회를 관할했다. 17세기 중반에는 수도원의 도서관에 교황과 황제-제후들이 기증한 1천 점 이상의 고문서와 800점이 넘는 14세기 이전의 사본들을 갖추어 이탈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서관으로 이용되었다. 1866년에는 수도원 건물이 이탈리아 국가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그후 제 2차 세계대전 때에도 파괴되었으나 복구되었다. 베네딕토 수도원의 회원 쇠신의 일반 원칙 조항은 다음과 같다. 수도 생활의 적절한 쇠신이란 모든 그리스도인 생활의 원천과 그 단체의 초창기 영감으로 끊임없이 되돌아가는 것이며, 또한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쇠신은 성령의 인도와 교회의 지도 아래 다음 원칙에 따라 증진되어야 한다. 가) 복음에 제시된 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수도 생활의 근본 규범이므로, 모든 단체는 이를 최고의 회칙으로 삼아야 한다. 나) 각 단체가 특수한 성격과 임무를 갖는 것은 교회에 매우 유익하다. 그러므로 설립자의 정신과 고유한 목적과 건전한 전통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각 단체의 세속 자산이다. 다) 모든 단체는 교회 생활에 참여하며, 성서, 전례, 교리, 사목, 일치 운동, 선교와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자기 특성에 따라 교회의 활동과 목적을 자기 것으로 삼아 힘껏 발전시켜야 한다. 라) 각 단체는 그 회원들이 인간 조건과 시대 상황 그리고 교회의 필요를 적절히 인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 회원들은 현대 세계의 상황을 신앙의 빛으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사도적 열정으로 불타올라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된다. 마) 수도 생활은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적 권고의 서원을 통하여 회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느님과 일치하게 하는 것이므로 회원들이 영적 쇠신으로 활력에 넘치지 않는다면, 현대의 요구에 대한 최선의 적응도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숙고하여야 한다. 외적 활동을 추진할 때에도 언제나 영적 쇠신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

6) 경건주의(敬虔主義)란 말은 라틴어 “피에타스, pietas”에서 온 것으로, ‘경건(piety)’, ‘헌신(devotion)’, ‘종교성(religiousness)’을 의미하며, 헬라어 “유세베이아, ευσέβεια”를 번역한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 이 헬라어는 12번 이상이나 사용되었는데, 주로 ‘거룩’, ‘경건’, ‘종교’ 등을 의미하는 말이다. 17세기에 “독일 루터교 안에서 경건을 표방하는 개혁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반대자들이 그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피에티스무스, Pietismus’라고 불렀던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

3) 성도들은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實踐)하는 것도 포함함을 배워야 한다.

4) 신학교육(神學教育)은 학생들이 지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숙한 성직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5) 설교는 어렵지 않고 명료해야 하며, 항상 실제적인 경건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야 한다.

(4) 부루더호프(Bruderhof Cmty)

부루더호프는 청빈하고 소박한 삶 그리고 사랑을 강조하는 노동 생활공동체로, 에버하르트 아놀드(Eberhard Arnold)라는 독일 사람이 1920년대에 독일 자네르츠라는 마을에서 초대 교회를 실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정 공동체를 시작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히틀러의 압력에 견디지 못해 1937년에 영국으로 이주하여 공동체를 세웠으나 독일군이 마을까지 찾아와서 폭격을 하자 공동체의 절반은 떠나고 절반은 브라질로 대피하여 그곳에 공동체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영국에 둘, 미국에 여섯(뉴욕 주에 넷, 펜실베이니아 주에 둘)이 있으며 호주와 한국에 하나씩 세워졌습니다. “부루더호프(Bruderhof)”란 말은 ‘형제들의 집’이란 말이며, 재세례파에 속한 것으로 분류되며 이 공동체의 특징은 자립경제를 위해 가구 공장, 채소재배, 꽃 재배 등을 하며 TV, 라디오, 컴퓨터 등을 금지하며 ‘노래’를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무소유를 추구합니다. 설립자의 아들인 요한 하인리히 아놀드(John Heinrich Arnold, 1913-1982)⁷⁾는 공동체의 실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며, 교만하고, 자기 이익과 권세와 지위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공동체 삶은 투쟁의 연속이었다. 나는 여러 번 믿었던 형제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말로 표현하기 힘든 온갖 기만과 협박을 받았다.”⁸⁾

(5) 아미쉬 공동체(Amish village)

아미쉬에 대해서는 특징만 소개합니다.

1) 아미쉬 사람들은 거울을 가까이하지 않는다. 용모를 가꾸고 치장을 하는 일을 금하고 있기에 외모를 뽐내기 위한 목적으로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 대신 그들만의 거울이 있다. 그게 바로 조상들이 흘린 피로 얼룩진 '순교자의 거울'이요, 일상을 통하여 마음과 정신을 비추고 가다듬는 일깨움의 거울이다.

2) 아미쉬에는 교회가 없고 교인들 집에서 돌아가며 예배를 보며, 예배당처럼 보이는 작은 건

7) 부루더호프 공동체 설립자 에버하르트 아놀드의 아들. 11세 때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소명을 발견한 후 전 생애를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다. 1938년 말씀의 종이요 목자로 추대되었고, 1962년부터 1982년 임종할 때까지 부루더호프의 장로로서 섬겼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내외적인 평안을 위하여 사람들을 깊이 돌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은 책으로는 [공동체 제자도](Discipleship, 쉐터 역간), [생각 지킴](Freedom from Sinful Thoughts, 진홍 역간), [꿈꾸는 인생](홍성사) 등이 있다.

8) 하인리히는 독일과 영국에서부터 매우 야심이 많았던 매제로부터 시기와 협박을 받아 공동체에서 불합리하게 리더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활동 제한을 받았을 때도 꼭 참았고, 브라질에서는 그 매제로부터 결혼한 부인과 강제 별거 명령을 당했을 때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정글 속에서 혼자 먹고 살아야 할 때도 잘 참았고, 미국에서는 부인도 없이 몇 년 동안이나 낯선 곳을 다니며 홀로 모금 운동을 해야 했을 때도 잘 참았다. 그 후에 그는 브라질, 미국, 영국 부루더호프 공동체를 살려 내었다.

물들은 아미쉬 공동체의 학교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교회가 없으니 십자가를 높이 올린 뾰족한 종탑이 있을 리 없고, 벽이나 천장, 창문 곳곳을 장식한 성화가 있을 리 없다.

3) 아미쉬는 모든 재산이 공유이며, 집에는 담이나 울타리가 없고 대문도 없다. 문을 걸어 잠그지도 않는다. 나아가 감시카메라나 경보 장치는 생각할 수도 없다. 그들은 공동으로 생산하여 공동으로 분배한다. 그렇다고 사유재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소품들은 자기 소유이다.

(더 자세한 생활 특징은 각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⁹⁾

3. 공동체의 내부적 특성을 회복하자

기독교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특성보다 내부적 특성을 살려야 합니다. 외부적 특성은 공동체의 겉으로 드러나는 건물, 위치, 사명, 인물의 특성을 말하며, 내부적 특성은 공동체의 정신, 철학, 성격, 영성의 특성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동체 신학으로 유명한 김현진과 아르헨티나에서 한국라브리에서 와서 라브리공동체를 연구하고 간 이승혁은 세계 공동체의 내부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철저성, 가시성, 개혁성이 두드러진다고 했습니다.¹⁰⁾ 저는 거기에서 공동체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는 실재성과 다원성을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1) 기독교 공동체는 가시성(visuality)을 표방한다

공동체는 막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전 생활을 통하여 영적, 정신적, 물질적 교제가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실제적인 공동체적 삶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성의 실천은 개념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이고 가시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제의 가시성은 물질의 나눔과 함께 가까운 공간에서 공동생활로 함께 사는 삶, 형제 사랑의 실천 등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에 미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가시성(可視性)이란 것은 복

9) 계속

4) 아미쉬 마을 사람들은 어떠한 공격을 받더라도 폭력을 휘두르거나 무력에 의존하지 않으며 보복도 하지 않는다. 군 집에 응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로 '용서'를 일깨운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5) 아미쉬 사람들은 교회의 리더와 연장자를 존경하고 예우를 해 주고, 또한 교회 리더와 연장자는 평신도와 젊은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이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나 전문성을 가진 전담 조직 없이도 아미쉬 공동체가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는 결정적 이유임이 분명하다.

6) 아미쉬에는 통일된 복장의 엄격한 규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에 관해 명문화된 규정집이 없고, 옷을 짓는 요령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한 지침서 하나가 없었다. 그들은 옷을 지으면서 어린 딸아이들이 옆에 앉아 지켜보게 하고 말로 일러 주면서 격식에 맞추어 옷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하나 터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수해 가고 있음이 분명했다.

7) 아미쉬 마을은 1930년대 시행된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에 반대했다. 그들은 공동체 삶을 영위하는 데 중학교 과정을 넘어서 고등교육은 해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들은 자체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학교 운영을 주장했다. 그들은 1971년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법적 권리를 얻어내기까지 주 정부로부터 피소를 당하고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감수했다.

8) 아미쉬 사람들은 가능하면 자동차를 타는 대신에 마차를 탄다. 자동차를 허용할 경우 손쉽게 공동체를 벗어나 바깥세상으로 나갈 수 있고, 빨리 움직이는 기동성의 매력에 빠져 생활의 속도가 빨라지고, 개인주의와 자기 과시욕에 들뜨는 등 교도들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진다. 나아가 분명 공동체의 겸손, 평등, 결속의 전통적 가치가 훼손될 것이었다.

9) 아미쉬 가족은 세 끼 식사를 함께하는 것을 가정생활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가장이 하루 종일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본다. 그들은 농사일을 하면서 어린 자녀를 데리고 다니고, 텃밭을 일구는 어린 딸아이에게 호미를 쥐어 준다.

10) 이승혁, '공동체 선교', 총신대학교신교대학원 석사학위 졸업논문

음이 실제로 보여 질 수 있도록 구현하는 복음의 가시적인 실재(visible reality)를 가리킵니다.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가 “기독교인의 삶은 최종적인 변증학(final apologetics)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과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디스 쉐퍼 부인(Mrs. Edith Schaeffer)의 다음의 말은 라브리공동체가 얼마나 가시성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지적했습니다. “라브리가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생활과 사역 속에서 과시(demonstration)하고자 하는 것이었다.”¹¹⁾ 보이지 않은 불가시적인 가치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지만, 그것이 가능할 때는 그만큼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됩니다.

(2) 기독교 공동체는 철저성(radicalism)을 생명으로 여긴다

교회사에 나타난 공동체 운동 단체들과 수도 공동체, 종교개혁 정신을 따른 교회들은 모두 ‘예수가 가르치신 바를 그대로 따라보자.’는 철저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 회원들에게 “격상된 훈련” 혹은 “철저한 헌신”이 요구되었습니다. “격상된 훈련과 철저한 헌신”은 종종 금욕적이고 영적인 훈련의 엄격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혹 어떤 단체들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철저한 헌신은 종종 공유재산, 유무상통(有無相通)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무상통은 많은 공동체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합니다. 내면적인 차원의 영적, 정신적인 교제는 외면적으로는 물질을 100퍼센트까지 나누는 유무상통의 차원까지 내려갑니다. 공유재산 혹은 공동체적 교제의 철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가족 정신의 철저한 시행이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지향하는 대부분의 단체들은 재산을 10-90%까지 부분적으로 공유합니다. 부분적인 공유는 결과적으로는 완전한 공유를 목표로 합니다.

(3) 기독교 공동체는 개혁성(reformability)을 목표로 한다

수도원이나 공동체들은 타락한 교회의 대안 운동 혹은 반동 운동으로 일어난 것이 많습니다. 아미쉬 공동체가 그렇고, 브라더호프 공동체가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대부분의 공동체들은 교회가 세속화 할 때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 했던 교회 갱신 단체들이다. 교회의 본질이 공동체이므로 교회의 개혁과 갱신은 자연히 공동체성 회복을 지향하며 또한 그러한 갱신을 지향하는 운동 자체는 당연히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역하였다.”(김현진)

타락한 문화는 소수의 ‘레디컬한 개혁 세력’에 의해 개혁되지 않으면 절대 저절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교회나 사회가 기도만 하면 저절로 개혁되리라고 생각하는 데 그것은 순진한 착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칼빈의 점진적 개혁운동 혹은 총체적 개혁운동을 지지하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론을 지지합니다.

- 1) 잘못된 문화는 선별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 2) 좋은 문화는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3)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창조한다.

11) Edith Schaeffer, L'Abri, Crossway Books, 1992, 16

(4) 기독교 공동체는 실재성(reality)을 기반으로 한다

쉐퍼 부부에게 라브리공동체는 전도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선교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영적 실재성을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과 성령의 능력을 믿는 영적 실재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쉬워집니다.

라브리공동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실재성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운영원칙에 적용합니다. 1)경제적인 필요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요청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학생들이나 손님들을 광고나 홍보로 모집하지 않습니다. 3)함께 일할 간사들이나 동료들을 모집하거나 선발하지 않습니다. 4)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5) 기독교 공동체는 다양성(diversity)이 중요하다

기독교 공동체는 그 운영방법이나 구성원들이나 목표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나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국제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 시민들만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이방의 세계라고 불리는 땅 끝에 사는 사람들까지”를 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원으로 영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국제적,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며, 그 성격은 탈 민족적이어야 하며, 배타주의, 고립주의, 분리주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이스라엘 땅 안에만 가두어 놓으려고 했던 것처럼, 마치 아이들이 선물 받은 사탕 한 봉지를 호주머니 속에 집어 넣어놓고 혼자만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전파성과 다양성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면 공동체가 소수의 기득권과 특정 분파에 의해 좌우되기 쉽습니다.

5. 공동체의 실제적 대안을 찾자

기독교 공동체가 그 본질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내부적 특성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주된 위기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실제적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모든 대답을 주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2:27-44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신약성경 전반에 흐르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당면한 위기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독교 공동체의 실제적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소수의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세우자(building-up good relationships)

기독교 공동체는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회원들까지 좋은 인간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표시입니다. 사랑은 인간관계만 아니라 전도에도 가장 큰 힘입니다. 변증학자 프레임도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논쟁 중에 하나는 사랑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2) 서로 관용하고 용서 합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니라.”(잠언 19:11)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용서’라는 말은 ‘abar, 아바르’란 말인데, ‘건너가다’, ‘넘어가다’는 말인데, 영어로는 ‘패스 pass’라는 말입니다. 그냥 넘어가거나 ‘패스’를 잘 하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며 명예와 영광과 친구를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3)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다 망치지 말고 소수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세 사람과 인격적인 인간관계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눈치보고 마음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의 필수 조건입니다.

(2) 육체적 순결을 보호하자(keep sexual safety)

많은 공동체가 성적인 문제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뉴스엔조이’가 추천하는 ‘성적 유혹 예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신이 성적(性的)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 목회자도 언제든지 성적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인간이다. 이런 문제를 초월한 천사나 중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2) 성적 타락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제어하라. 이성 성도와 단 둘이 있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피치 못할 이유가 있다면 공개된 장소를 이용하라. 지방 출장으로 호텔을 이용할 경우 가급적이면 배우자와 동행하라.

3)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라. 가정은 성적인 유혹에서 나를 지켜준다. 배우자와의 건강한 소통은 성적 탈선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4)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동역자들을 확보하라. 이런 그룹은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5) 성적인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 자신 앞에 펼쳐질 일들을 미리 상상해 두라. 가정은 파괴될 것이고 성도들은 깊은 실망에 빠질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미리 저장해 둬으로써 유혹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다.

6) 탈진을 피하라. 영적·육적 탈진은 당신의 도덕적 무장을 해제할 것이다. 만일 탈진이 되었다면 유혹이 많은 곳에서 혼자서 충전하려 하지 말고 가족 안에서 충전하라. 재충전을 위한 여행이 성적 타락의 주요 동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라.

7) 각종 음란물의 유혹을 사전에 방지하라. 현대 사회에서 음란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안전지대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시간과 방문 사이트를 미리 정해놓는 것이 도움이 된다.

(뉴스엔조이, 2003. 6. 20)

(3) 경제정의를 실험해 보자(practice economic justice)

돈의 권력을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모든 인류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꿈같은 사건이 일어난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밭과 땅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을 단회적 추억으로만 상기하고 말까요? 아니면 오늘날의 공동체에도 그 정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1) 사유재산과 자본주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2) 공평한 분배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기분 나빠 하는 것은 ‘빈부격차’라고 합니다. 분배의 정신에 대해 종교개혁가 칼빈(Calvin)은 이 정신의 뿌리가 구약의 ‘만나의 재분배’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라”(고린도후서8:15)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3)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4)돈 문제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실천해 보자. 라브리는 “Faith Mission”정신을 모든 신자들이 다 가져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4) 가치관적 통합을 이루자(try intellectual integrity)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공동체를 매우 물리적이거나 감정적인 단체로 생각하는지, 밥을 한 그릇 같이 먹었다든가 목욕탕을 같이 갔다 온 것으로 하나 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관계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보다는 사고방식을 하나 되게 하는 ‘가치관 일치 작업’ 혹은 ‘교리적인 통일’이 필요합니다. 만약 가치관의 통합 혹은 세계관적인 통합은 시도하지 않고 물리적이거나 감정적인 방법만 동원한다면 그 공동체는 얼마 가지 않을 것입니다.

1) 진리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디모데전서 3:15)는 말씀처럼,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기둥 위에 서야 합니다.

2) 모든 사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작업에 앞장서야 합니다. 시대정신을 분별하고 성경적 통합 연구를 하는 최종 목적은 모든 사상과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종시킨다(make it(thought) obedient to Christ)”(고린도후서 10:5)는 것은, 마치 옛날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적장의 목을 발등상 혹은 발판으로 삼고 무릎을 꿇게 했듯이, 모든 이론을 그리스도의 주권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3) 서로를 날카롭게 해 줄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잠언 27:17)

(5) 영적 실체를 유지하자(sustain spiritual reality)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고속 성장이나, 주일 성수, 십일조 헌금, 전도 훈련과 같이 것이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적 실체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본질적인 ‘영성’이 없이 비본질적인 형식만 화려하다면 그 공동체는 안테르센의 ‘별거숭이 임금님’처럼 실제로는 벗었으면서도 형식과 제도로 멧만 잔뜩 부

리는 ‘죽은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결과 요즘은 모든 것이 너무 아트피셜(artificial)하고, 산뜻하고(cool), 세련되고(elegant), 스마트(smart)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모든 것이 너무 가볍고(slight), 얄팍하고(frivolous), 천박하고(superficial), 미덥지 못합니다(fake). 다른 말로 하면, 바울 사도가 말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디모데후서 3:5)처럼 겉은 번지르르 한데 깊이가 없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련된 영정보다 바른 영성이 필요합니다.

1) 바른 영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의 본질적인 성격은 전 인격적인 치유요 회복입니다.

2) 바른 영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순간순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처음 믿을 때에만 붙잡고 그 후에는 추억의 박물관 속에 처박아 버리지 말고 날마다 순간마다 붙잡아야 합니다.

3) 바른 영성은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삶입니다. 믿기만 하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4) 바른 영성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5) 바른 영성은 지성적이며 동시에 체험적입니다. 예수 안에서 신앙과 지성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6) 바른 영성은 죄 짓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영적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신앙의 영역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과시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른 영성입니다.

7) 바른 영성은 기도와 말씀으로 유지됩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이 없이는 영적 거인이라도 영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